



어떻게 하면 영적인 경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?

어둠이 없는 밤과 낮을 본 니파이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레이맨인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에 놀라워했다.(제3니파이 1:15~21 참조)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“백성들은 들은 바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며”(제3니파이 2:1) 악으로 돌아섰다.

니파이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었을까?

니파이인들이 목격한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린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.

제3니파이 1장 22절과 제3니파이 2장 1~3절 및 10절을 읽고 이 백성들이 주님을 잊게 된 방식을 열거해 본다.

오늘날 사탄은 어떻게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가?



토론

인생에서 겪은 “잊지 못할” 영적인 경험을 망각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?

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 보았는가? 생각한 것을 일지에 적어 본다. 그것을 가족과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.



우리는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?

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. “특히 위기의 순간에, 자신이 영을 느꼈던 때와 간증이 강했던 때를 떠올려 보며 자신이 쌓았던 영적 토대를 기억해 보[십시오.] ... 여러분이

이렇게 하신다면, ... 간증이 차고 넘쳤던 그 소중한 시절이 겸손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다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을 약속합니다.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안전과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을 장담합니다.”¹

과거에 했던 영적인 경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?



주

1.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, “잊어버리지 말라”, 『리아호나』, 2016년 11월호, 114쪽.